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504-509,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50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영임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The effec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psychological well-be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area

Young-im Kim
Division of Dental Hygiene, Jeonju Visi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은 적합된 회귀모형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6.575, p〈.05), 설명력은 53.6%였다. 독립변수 중 긍정적 대인관계(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과 연관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9 to November 30, 2019 with 180 dental hygienists living in Jeollabuk-do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Scheff?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8.0. Psychological well-being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596, p〈.001).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a suitable regression model (F=116.575, p〈.05),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3.6%.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factor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wer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personal growth, environmental mastery and clinical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is related to emotion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strengthe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 Clinical, Dental hygienists,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Young-Im Kim(Jeonju Vision College)
email: yikim@jvision.ac.kr
Received March 31, 2020 Revised May 22, 2020
Accept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국민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은 의료소비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1]. 치과위생사는 의료소비자를 만날 때 자신의 본래의 감정을 감춘 채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환한 표정으로 대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감정표현을 억압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임상능력의 향상 및 꾸준한 자기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으며[3], 급격한 의료수요의 상승으로 인한 병원간의 경쟁 심화, 과다한 업무량, 의료분쟁 증가 등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긴장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4]. 특히 임상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통합되어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개인적 성장,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 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의 심리적 측면들의 통합으로[5]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임상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얽혀있어,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최선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 있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견지하고서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나간다[6].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최근 긍정적 효과를 입증 받고 있는 감성지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7]. 치과위생사는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 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기분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2]인 감성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자원에 속하는 것으로 치과병·의원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함으로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7]. 결과적으로 임상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는 만족은 치과위생사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다[8]. 그러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구의 목적과 취지, 대상자의 윤리보호 및 익명성의 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한 전라북도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5% 검정력 수준에서 회귀분석(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에 필요한 표본수는 210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최종 연구에는 총 180명(회수율 85.7%)을 연구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14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 직무관련 특성 5문항으로 총 65문항을 조사하였다.

2.2.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5]가 개발하고 Kim 등[6]이 이용한 도구를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6]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85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25이었다.

2.2.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9]가 개발한 WLEL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Kim[7]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자신의 감정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정조절 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Kim[7]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85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4이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0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자아수용이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성장 3.15점, 자율성 3.10점, 환경에 대한 통제력 3.07점, 긍정적 대인관계 2.99점, 삶의 목적 2.75점 순이었다. 감성지능의 평균은 3.4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자신의 감정이해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성조절 3.49점, 타인의 감성이해 3.40점, 감성활용 3.36점 순이었다(Table 1).

Table 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Division		M	S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 acceptance	3.18	0.38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2.99	0.49
	Personal growth	3.15	0.31
	Autonomy	3.10	0.34
	Purpose in life	2.75	0.52
	Environmental mastery	3.07	0.45
All		3.04	0.24

Division		M	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 appraisal	3.52	0.57
	Others' emotion appraisal	3.40	0.57
	Use of emotion	3.36	0.53
	Regulation of emotion	3.49	0.73
All		3.44	0.47

3.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차이

대상자의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심리적 안녕감은 현재 직장에 이직의도($p<.001$)가 없거나 직급($p<.05$)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피로감($p<.05$)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F(P)
Clinical career	-4 yrs	71	3.04±0.26	1.435 (0.234)
	5-9 yrs	52	3.01±0.20	
	10-19 yrs	47	3.10±0.23	
	20 yrs ≤	10	2.99±0.21	
Current career	≤ 2	36	3.00±0.25	0.637 (0.592)
	2-4 yrs	34	3.07±0.19	
	5-9 yrs	45	3.04±0.26	
	10 yrs ≤	35	3.04±0.25	
Turnover intention	Yes	94	2.99±0.21	1.805 (0.001**)
	No	86	3.10±0.24	
Rank	General dental hygienist	107	2.82±0.99[a]	3.548 (0.031*)
	Team leader	56	3.04±0.21[b]	
	Head	17	3.05±0.24[b]	
Job fatigue	I do not feel job fatigue	2	3.15±0.28	0.992 (0.373)
	I feel job fatigue sometimes	82	3.06±0.21	
	I often feel job fatigue	96	3.02±0.25	

Classification		N	Emotional Intelligence	
			M±SD	t/F(P)
Clinical career	-4 yrs	71	3.46±0.40	0.902 (0.441)
	5-9 yrs	52	3.40±0.42	
	10-19 yrs	47	3.48±0.56	
	20 yrs ≤	10	3.24±0.56	
Current career	≤ 2	36	3.43±0.55	0.052 (0.981)
	2-4 yrs	34	3.54±0.52	
	5-9 yrs	45	3.43±0.39	
	10 yrs ≤	35	3.42±0.38	
Turnover intention	Yes	94	3.44±0.44	0.221 (0.826)
	No	86	3.43±0.49	
Rank	General dental hygienist	107	3.27±0.66	1.348 (0.263)
	Team leader	56	3.40±0.47	
	Head	17	3.51±0.44	
Job fatigue	I do not feel job fatigue	2	3.75±0.35[a]	`3.328 (0.042*)`
	I feel job fatigue sometimes	82	3.52±0.49[a]	
	I often feel job fatigue	96	3.36±0.44[a]	

* : p<.05, ** : p<.001, [a,b]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3.3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신의 감정이해(r=.538, p<.001), 타인의 감정이해(r=.411, p<.001), 감성활용(r=.477, p<.05), 감성조절(r=.94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ntal hygienis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x1	x2	x3	x4	x5
x1	1				
x2	.596**	1			
x3	.538**	.687**	1		
x4	.411**	.608**	.441**	1	
x5	.477*	.591**	.536*	.486**	1
x6	.643**	.556**	.455**	.295**	.430**

* : p<.05, ** : p<.001,
x1: Psychological well-being, x2: Emotional Intelligence x3: Self emotion appraisal x4: Others' emotion appraisal x5: Use of emotion x6:Regulation of emotion

3.4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장,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직무관련 특성 등을 가변수 처리하고 감성지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6.575,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3.6%였다. 독립변수 중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Emotional intelligence

Classification	B	SE	β	t	p
Psychological well-being	0.602	0.044	0.364	2.684	0.000
Self acceptance	0.583	0.023	0.479	1.965	0.044
Positive relations to others	0.490	0.027	0.569	4.124	0.015
Personal growth	0.326	0.028	0.456	6.425	0.025
Environmental mastery	0.223	0.159	0.279	2.186	0.026
Clinical career	0.442	0.051	0.216	1.242	0.015
R^2 = 0.548 Adjusted R^2=0.536, F=116.575(p<.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논의

치과 병·의원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치과위생사들이며 이들은 환자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10]. 이러한 임상치과위생사는 경험하는 환자진료에 있어 책임과 치위생업무성과를 넘어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위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04점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11]의 연구는 3.31점, Kang과 Bae[12]의 연구는 3.30점이며, 초등교사[13]는 3.61점으로 타 직종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업무 범위 내에 조직과 기관의 원칙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판단하고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다소 낮게 나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종사자 간의 격려와 칭찬과 같은 행동적 보상

을 통해 업무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의 평균은 3.44점이었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Kim[7]의 연구는 3.47점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과 Yom[14]의 연구는 3.45점, Baik과 Yom[15]의 연구는 3.46점으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은 대상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표현하며 능동적인 전략을 세워 진정한 감정을 자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16]. 즉, 치과위생사는 자신을 이해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영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Bae[12]의 연구는 감성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전반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기능이 높으며[17], 감성지능은 업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간의 충돌이나 관련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18]. 즉,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인 개인의 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진과 다른 진료팀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chutte와 Malouff[19]의 연구결과에서도 감성지능이 마음챙김과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한 긍정적 감정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감성지능은 환자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인 치과위생사에게 매우 필요하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야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20]. 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최고의 치과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치과위생사는 감성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감성지능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며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과도한 긴장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무 외 시간에 취미활동을 하거나 감정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감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관성을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 심리적 안녕감은 현재 직장에 이직의도($p<.001$)가 없거나 직급($p<.05$)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피로감($p<.05$)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96$, $p<.001$)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에 관련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 개인의 성장, 대인관계,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임상경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감성지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I. S. Kim,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urnover intention among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vol. 15, no. 4, pp. 515-526, 2009.

[2]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pp. 5-30, 1995.

[3] S. M. Hong, H. K. Kim, Y. S. Ahn,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ist", J Den Hyg Sci, vol. 9, no 3, pp. 295-302, 2009.

[4] H. O. Lee, O. J. Ju, Y. I. Kim, "An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at J Region", Dent Hyg Sci, vol. 7, no . 2, pp. 65-72, 2007.

[5]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 Soc, vol. 57, no. 6, pp. 1069-1081, 1989.

[6] M. S. Kim, H. W. Kim, K. K. Cha,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5, no. 2, pp. 19-39, 2001.

[7] Y. I. Kim, "Factors affecting clinical dental hygienist emotional intelligence on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8, pp. 410-416,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8.410

[8] D. B. Slavitt, P. L. Stamps, E. B. Piedmont, A. M. Haase, "Nurs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vol. 27, no. 2, pp. 114-120, 1978.

[9]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10] J. O. Jung, K. S. Song, "A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J Dent Hyg Sci, vol. 8, no. 4, pp. 305-312, 2008.

[11] M. Y. Park, "Effects of roll strain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nurses on communication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2.

[12] S. M. Kang, S. H. Ba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f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linical nurses", J Muscle Jt Health, vol. 22, no. 3, pp. 185-194, 2015.
DOI: http://dx.doi.org/10.5953/JMJH.2015.22.3.185

[13] S. J. Park, E. Y. Son,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teacher efficacy, job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female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27, no. 3, pp. 151-166, 2011.

[14] J. H. Jeon, Y. H. Yom, "Role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 20. no. 3. pp. 302-331, 2014.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3.302

[15] D. W. Baik, Y. H. Yom,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 8, no. 3, pp. 271-280, 2012.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2.18.3.271

[16] H. J. Kang, H. G. Jeon, M. Y.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hospital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strategies and innovative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2, pp.387-406,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2.387

[17] L. Karimi, S. G. Leggat, L. Donohue, G. Farrell, G. E. Couper, "Emotional rescue: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labour on well-being and job-stress among community nurses.", J Adv Nurs, vol. 70, no. 1, pp. 176-186, 2014.
DOI: http://doi.org/10.1111/jan.12185

[18] A. Carmeli,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work attitudes, behavior and outcomes: An examination among senior manager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8, no. 8, pp. 788-813, 2003.
DOI: http://doi.org/10.1108/02683940310511881

[19] N. S. Schutte, J. M. Malouff,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0, no. 7, pp. 1116-1119, 2011.
DOI: http://doi.org/10.1016/j.paid.2011.01.037

[20] Y. Zhu. C. Liu, B. Guo. L. Zhao, F. Lou,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work engagement of registered nurses: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justice". J Clin Nurs, vol. 24, no. 15, pp.2115-2124, 2015.
DOI: http://doi.org/10.1111/jocn.12807

김 영 임(Young-Im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학